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 안내서

2017.09.16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CONTENTS

Chapter I . 공론화 이해	1
Chapter II . 시민참여단 활동 참고 사항	11
Chapter III .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쟁점	20

CHAPTER I

공론화 이해

1. 공론화에 대한 이해
2.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3.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체계
4. 시민참여단 선정 및 역할

1. 공론화에 대한 이해

공론(화)의 의미

사전적 의미

‘여럿이 모여 의논하는 것’으로

어떤 문제에 대해 국민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정한 의견을 뜻함

공론화(公論化)

특정한 공공정책 사안이 초래할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전문가, 일반시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는 절차

핵심 키워드

“숙의(熟議)”

‘깊이 생각하고 토의한다’는 의미로,

공론화에 참여하는 일반 시민들이 의사결정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

1. 공론화에 대한 이해

공론(화)의 성공 요건



2.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배경

배경 1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천명하고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배경 2

그러나, 신고리 5·6호기 공사는 2017년 5월 기준으로 약 1.6조원의 공사비가 이미 투입되어 종합 공정률이 29%에 이르러 공약 그대로 공사를 중단하기 보다는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기념행사(‘17. 6. 19) 시 대통령 기념사 중

“지금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는 안전성과 함께 공정률과 투입비용, 보상비용, 전력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습니다.”



2.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공론화 주제 및 의의

주제

이번 공론화의 주제는
공사가 진행 중인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을 지속할지 아니면
영구중단 할지 여부**입니다.
현재 신고리 5·6호기 공사는 **공론화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중지된 상태**입니다.

의의

**문재인정부 출범 후 첫 번째로 시행하는 이 공론화는
국가적 중대 프로젝트인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둘러싸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참여하게 대립하고 있어 국민적 관심도가 높습니다.**

공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는 이번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면,
앞으로도 다양한 갈등 사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형성할 수 있는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회적 합의 형성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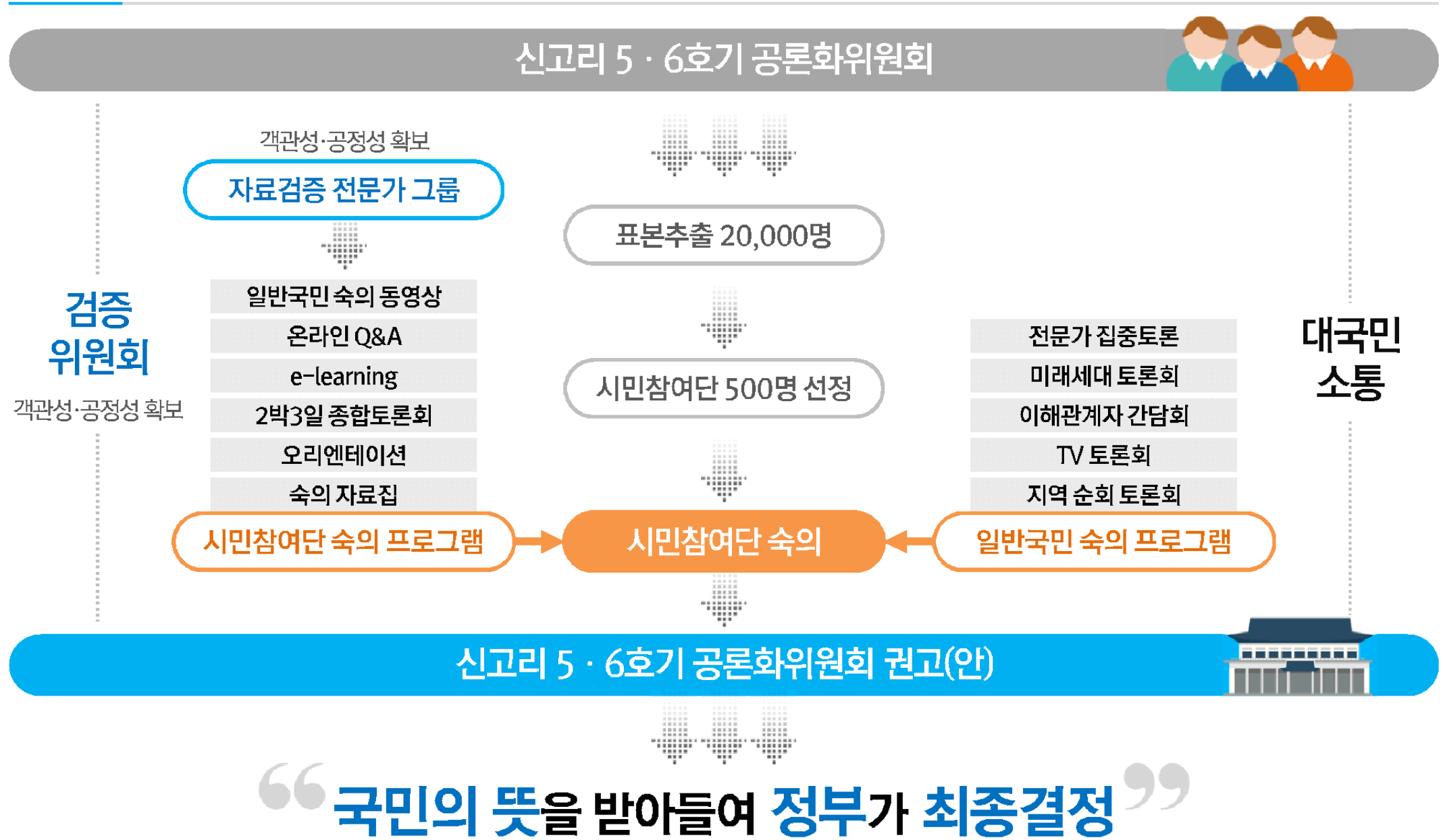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 1 독립적인 지위
- 2 공론화 과정은 공정하게 설계
- 3 공론화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
- 4 공론화 결과를 권고의 형태로 정부에 전달하는 자문 기구
- 5 위원장·위원(8명)은 공론화 의제와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인사 중 국무총리가 위촉





※ 숙의·조사·소통·법률 등 4개 분과위원회, 이해관계 소통협의체 등 운영

3.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체계



4. 시민참여단 선정 및 역할

시민참여단 선정

- 1 선정 기준**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19세 이상 **국민의 대표성 확보**
- 2 선정 방식** 
 - **시민참여형 조사(1차)**를 통해 표본추출 및 시민참여단 선정
- 3 표본 추출** 
 - **지역(16개 시·도)·성·연령(5개 층, 20대~60대 이상)**을 고려, **160개 층으로 세분화하여 20,000명 추출**
- 4 표본 선정** 
 - 표본추출 20,000명 중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재개/판단유보, 성, 연령을 고려하여 시민참여단 500명* 선정**
 - * 국내·외 사례 :
(국내) 사용후핵연료 173명('15.3월)
(일본) 에너지 환경의 선택 286명('12.8월), (미국) 넥스트 캘리포니아 412명('11.6월)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7.27, 제2차 전체회의)에서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시민참여단 선정 방식 및 규모 결정

4. 시민참여단 선정 및 역할

시민참여단 역할

“ 공론화위원회 권고(안) 도출을 위한 ”

설문조사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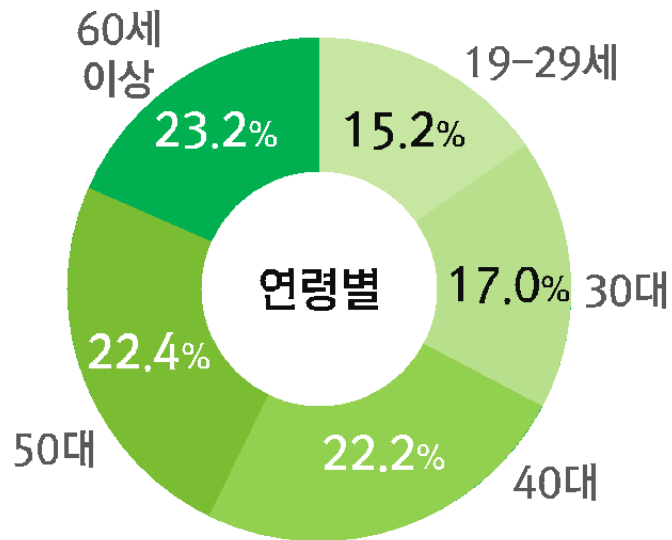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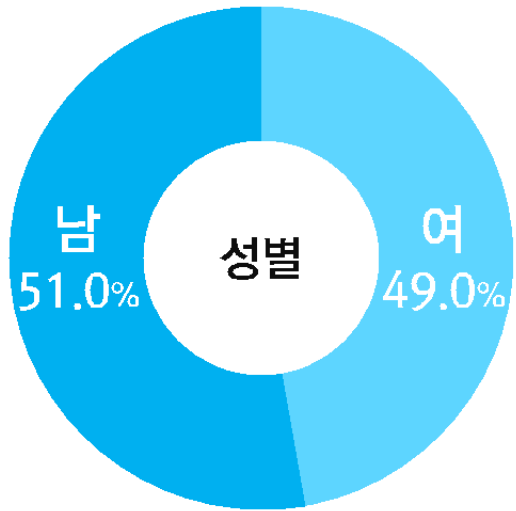


※ 참고 : 시민참여형 설문조사

구분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	4차 조사
조사시기	휴대전화/집전화 조사 (8.25~9.9)	오리엔테이션 (9.16)	종합토론회 1일차 (10.13)	종합토론회 3일차 (10.15)
조사목적	• 시민참여단 참여 여부 • 건설 찬/반/유보	• 숙의 전 인식수준 • 숙의 전·후 비교	• 학습효과 확인 • 개인특성 파악	• 공론화 과정 평가 • 최종결과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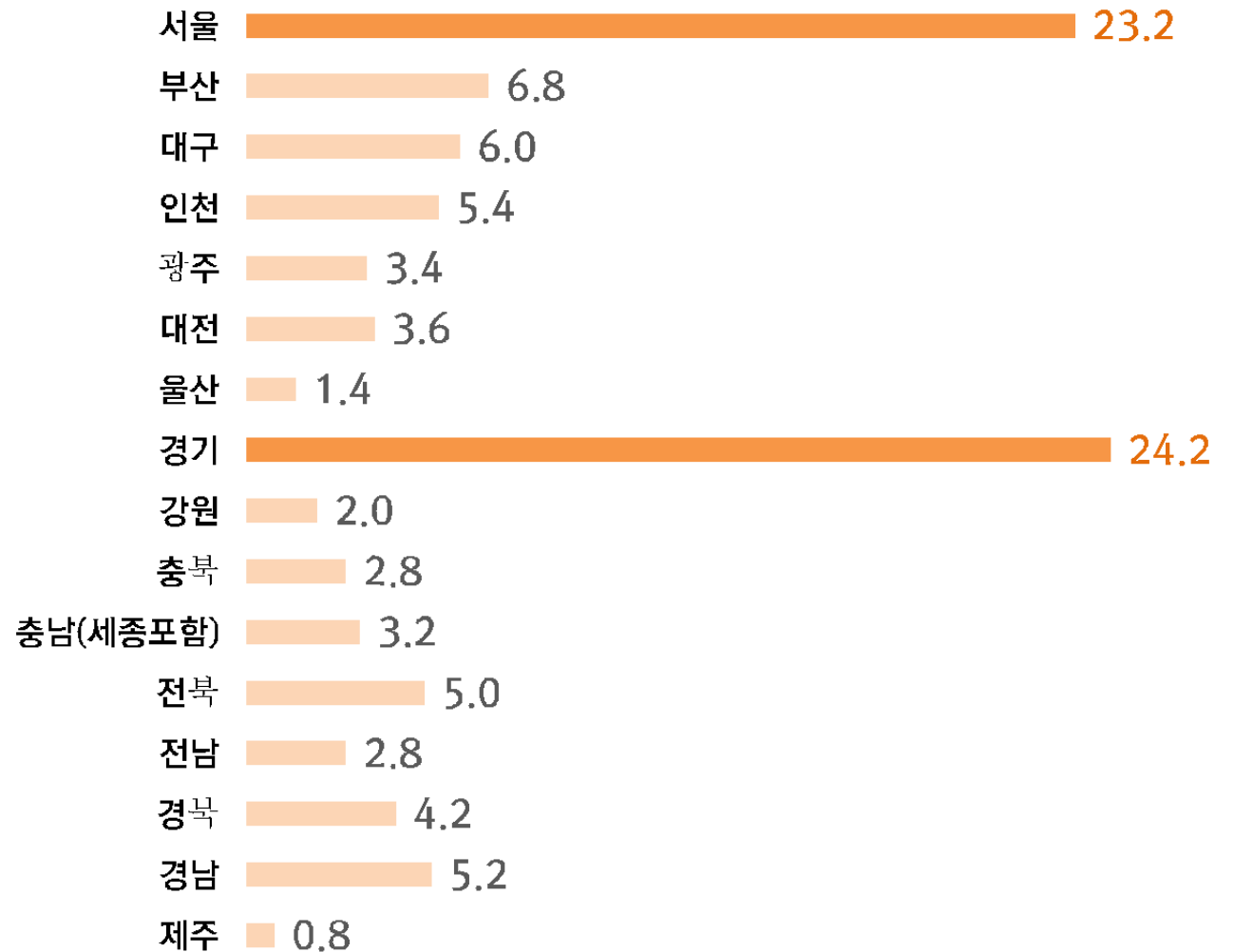
4. 시민참여단 선정 및 역할

시민참여단 현황



지역별

(단위: %)



CHAPTER II

시민참여단 활동 참고 사항

1. 이러닝(e-learning)
2. 시민참여단 종합토론회
3. 토론회 일정
4. 시민참여단 사례금 및 실비 지급
5. 참여 및 경청 토의 규칙

1. 이러닝(e-learning)

이러닝 (e-learning) 개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의 핵심 쟁점에 대한 중단/재개측의 주장을 동영상 강의 자료로 제공하여 시민참여단의 이해 제고

시민참여단과 재개/중단측 전문가간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플랫폼을 제공하여 시민참여단의 의문사항을 실시간 해소

이러닝 시스템은 시민참여단만이 사용 가능

이러닝은 데스크탑 PC, 태블릿, 모바일폰 등 환경에서 가능

이러닝 시스템 오픈 : '17.9.21(목)

1. 이러닝(e-learning)

이러닝(e-learning) 방법

Step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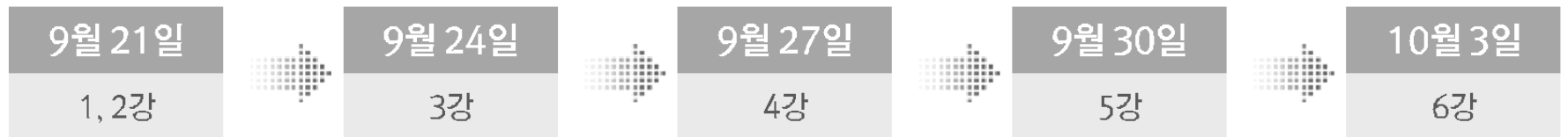
이러닝 시스템 접속

- 공론화위원회 홈페이지(<http://www.sgr56.go.kr>) 접속
- 좌측 하단 '시민참여단' 버튼 클릭 ⇒ 이러닝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
- 아이디(휴대전화번호), 패스워드로 로그인 시도
- 로그인 후 직접 패스워드를 다시 변경하여 설정

Step 2

동영상 강의 학습

- 동영상 1강 ~ 6강까지 학습하고 학습진도를 체크
 - 1강 : 공론화위원회에서 제작 (공론화 개념, 공론화 방법 등)
 - 2강 ~ 6강 : 건설 중단/재개측이 쟁점별 주장을 동영상으로 제작, 양측 5개씩 총 10개 강좌
- 동영상은 9.21일부터 순차적으로 업로드



기타

Q&A방

- 시민참여단의 다양한 질의에 대해 건설 중단/재개측 전문가가 질문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답변 게시

2. 시민참여단 종합토론회

일시/장소

일시 10월 13일(금) 19:00~
10월 15일(일) 16:00

장소 교보생명 계성원
(천안 소재)

참석 규모

- 시민참여단 500명
- 공론화위원회 및 지원단 30명
- 모더레이터 50명
- 진행요원(보안, 응급 등) 50명 등
- **총 650여명 예상**

주요 프로그램

- 3차조사, 진행안내, 특강,
분임토의, 전체토의(생방송),
질의응답, 최종조사

※ 구체적 세부 프로그램은 추후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3. 토론회 일정

지역 순회 토론회

일정	개최지역	행사명
9.18.(월)	부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부산지역 토론회
9.21.(목)	울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울산지역 토론회
9.26.(화)	서울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서울지역 토론회
9.28.(목)	경기(수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경기지역 토론회

TV 토론회

방송사		프로그램	방송일시	주제
공중파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17.9.27(수) (14:00~16:00)	• 신고리 5·6호기 찬반토론회(가제)
종편	채널A	긴급진단	'17.10.2.(월) (12:00~13:30)	• 신고리 5·6호기 찬반토론회(가제)
보도	YTN	특별기획	'17.10.5.(목)~7.(토) (10:00~11:20)	• 신고리 5·6호기 찬반토론회(가제)

※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변동 시 별도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4. 시민참여단 사례금 및 실비 지급

사례금 지급

- 1 지급 대상**  ● OT 또는 종합토론회 참석, 자료집 및 동영상 학습 등 **숙의과정 참여하는 시민참여단**
- 2 지급 금액**  ● 숙의과정 참여도에 따라 다르나, 공론화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모든 숙의과정 이수 시 총 85만원 지급**
- 3 지급 원칙**  ● **사후정산 원칙**
- 4 지급 시기**  ● 종합토론회가 종료되는 **10월 15일 이후 1주일 이내** 시민참여단 **개인 계좌 입금**

4. 시민참여단 사례금 및 실비 지급

실비 지급

1 지급 대상



- OT 또는 종합토론회 참석을 위해 지불한 시민참여단의 교통비를 보상
- 대중교통 : 항공, KTX, 철도, 시외 또는 고속버스 요금

2 인정 기준



- 영수증 등 본인이 명시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사후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

3 지급 시기



- OT 및 종합토론회 이후 개인별 증빙서류 확인 후 1주일 이내 개인계좌 입금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에 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
한국리서치 콜센터 02-3149-1895로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참여 및 경청 토의 규칙

참여 규칙

- 01 나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위한 숙의 과정에 국민의 대표로 참여하는 시민참여단입니다.
- 02 나는 시민참여단으로써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와 관련한 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학습하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03 나는 시민참여단으로서 내 생각에만 매몰되지 않고, 나와 다른 의견을 귀 기울여 들을 것이며,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04 나는 시민참여단으로서 오리엔테이션과 2박3일 종합토론회에서 나와 동료 시민참여단에게 어떠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 05 나는 시민참여단으로서 공익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비밀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5. 참여 및 경청 토의 규칙

경청 토의 규칙

- 01 모든 생각은 타당합니다.
- 02 말할 때와 들을 때 서로 존중합니다.
- 03 한 사람이 말할 때는 끼어들지 않고 듣습니다.
- 04 생각이 다르더라도 끝까지 마음을 다해 듣습니다.
- 05 다른 사람들도 충분히 말할 수 있도록 주어진 발언시간을 지킵니다.
- 06 생각 나누기, 질문하기, 듣기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 07 원활한 토론회 진행을 위해 모더레이터의 안내를 잘 따릅니다.

CHAPTER III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쟁점

1. 건설중단촉 입장
2. 건설재개촉 입장

건설중단측 입장

우리의 선택이 가져올 변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참여단 발표회

홍종호 (경제학박사)
서울대학교 교수

가난, 빈곤



나무심기, 조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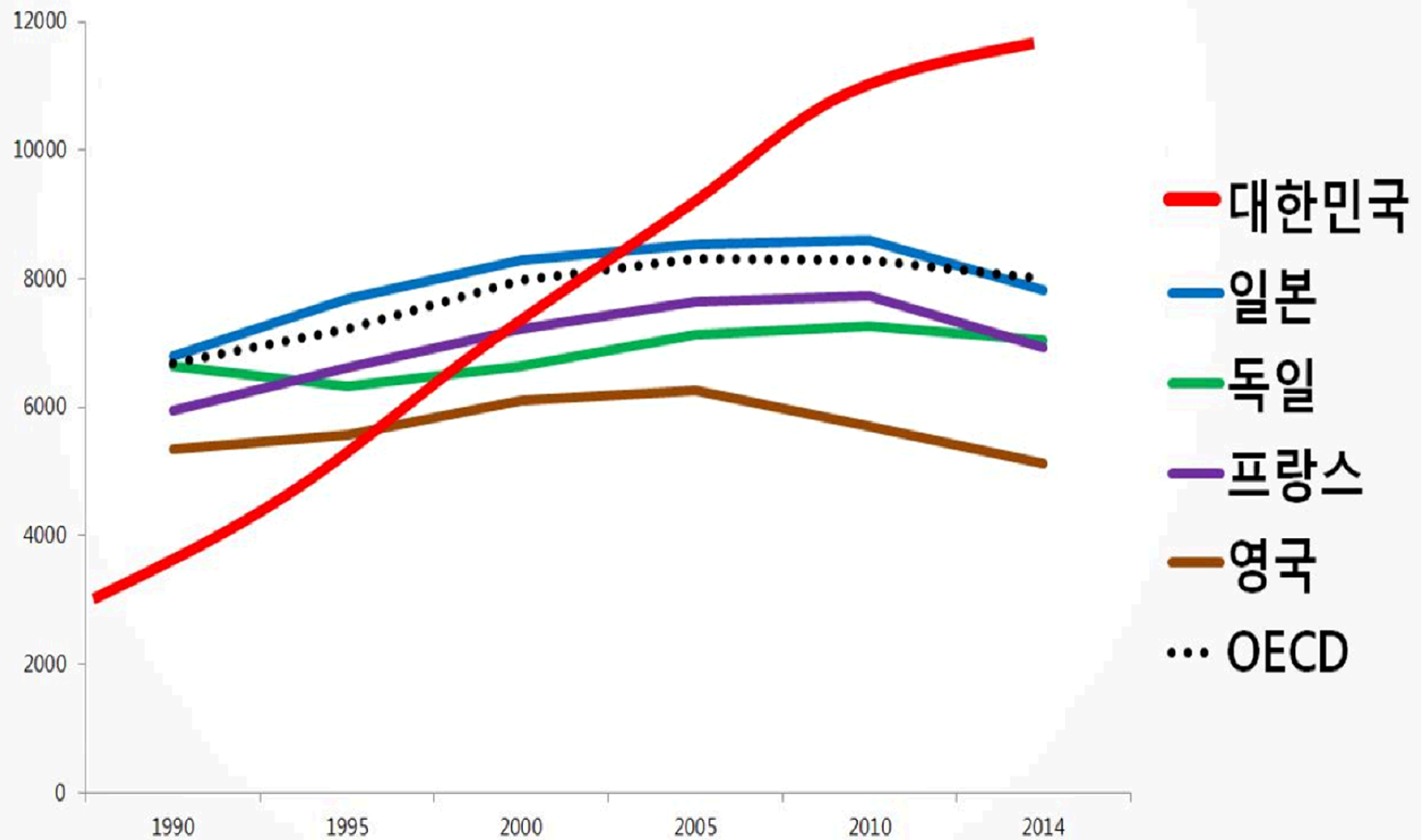
공장,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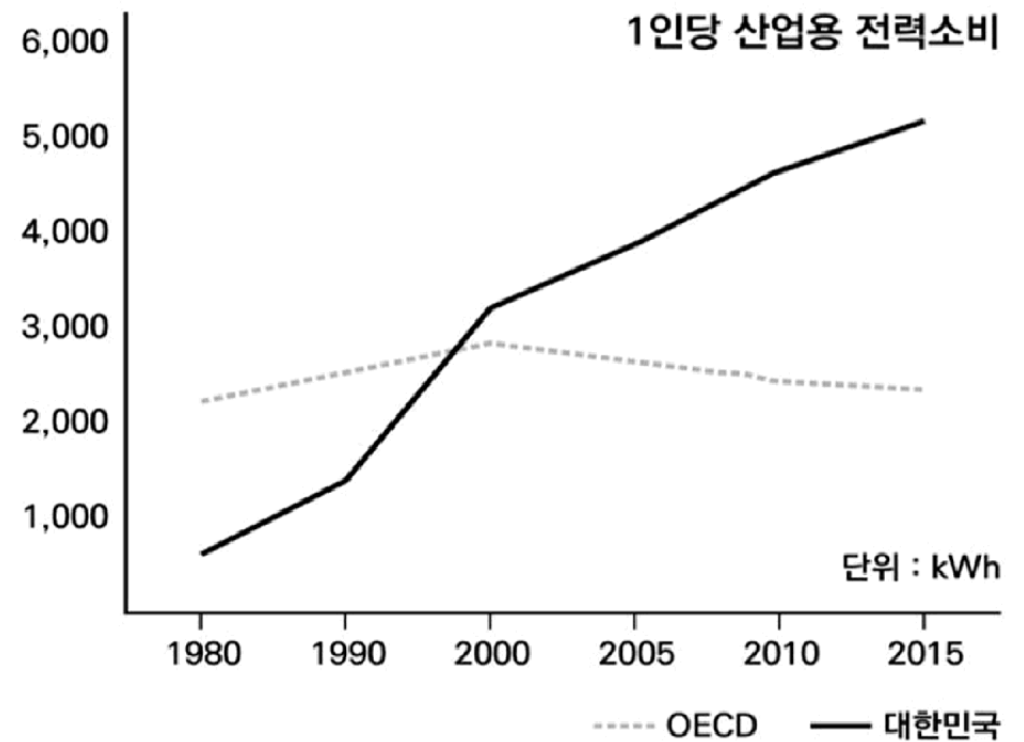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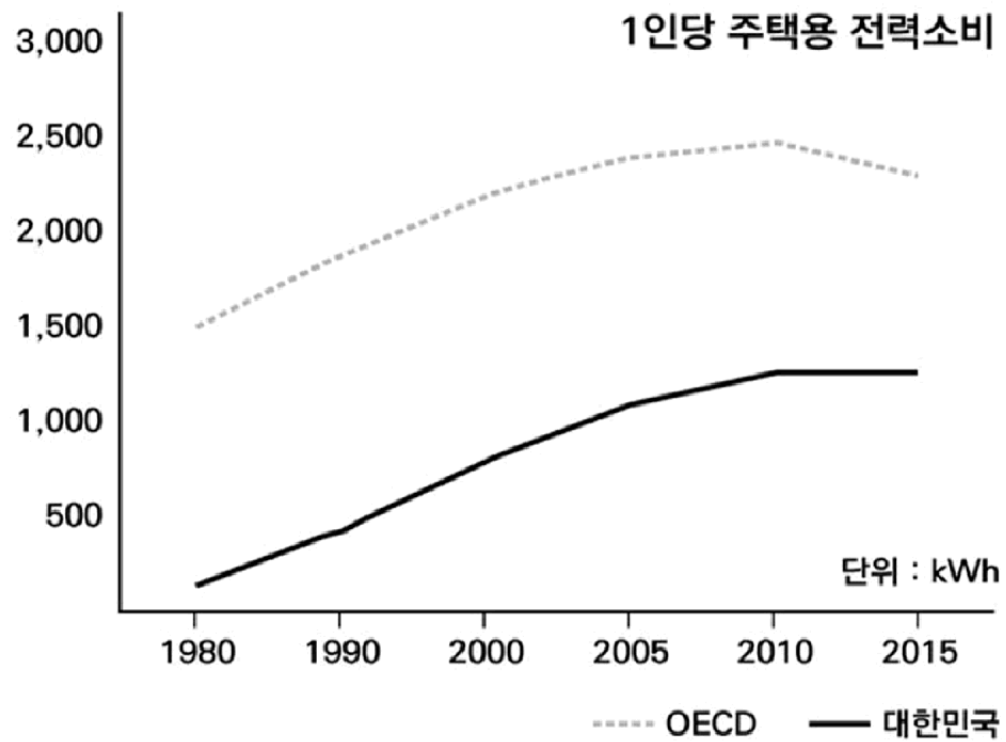
대한민국은 전력 다소비 사회

〈 OECD 주요국 1인당 전력소비량〉

kWh per capita



주택용·산업용 전기소비 국제비교



※출처: IEA, OECD, 세계은행 자료

지나치게 많은 산업용 전력 소비

〈 2015 용도별 전력판매현황〉

구분	판매량 (백만 kWh)	구성비 (%)	판매단가 (원/kWh)
산업용	273,548	57%	107
주택용	65,619	14%	124
상업용	103,679	21%	130
기타	26,734	6%	47~113
계	483,655	100%	112

전력다소비기업 효율개선 시급

전력 다소비
10대 기업

62TWh
94원



대한민국
총 가구수 2,150만

66TWh
124원



높은 에너지수입의존도, 낮은 에너지효율

한국 에너지 원단위는 OECD 회원국 34개국 중 31위 (2013년)
일본, 독일, 영국, EU 국가의 2~3배 수준

구분	한국	일본	독일	영국	EU
에너지원단위 (toe/천USD)	0.22 (100)	0.095 (43)	0.100 (45)	0.07 (34)	0.107 (49)



대한민국은 **에너지 소비량의 95%**를 수입하는 나라
화석연료, 우라늄 수입 → 재생에너지가 국산에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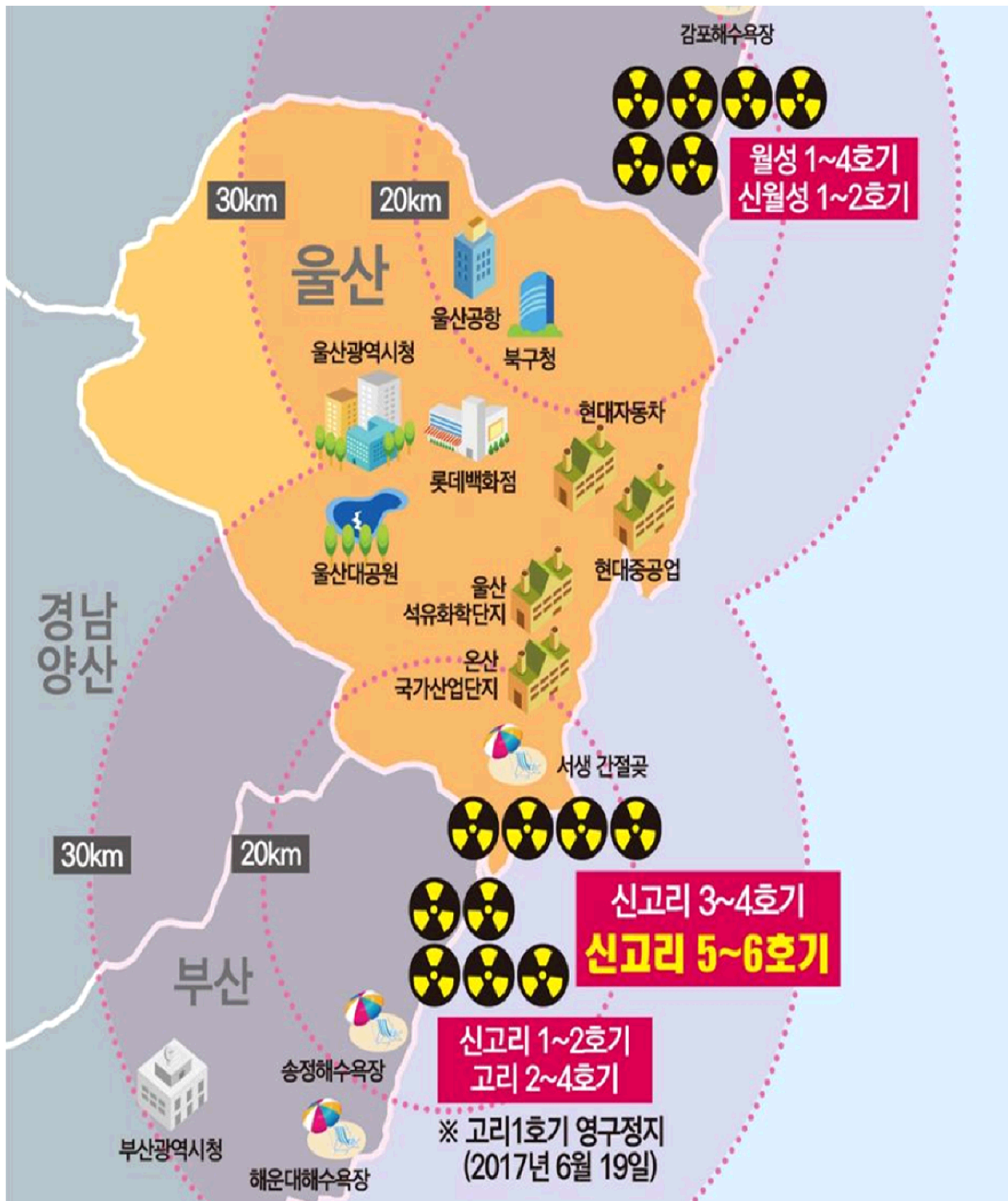


세계 1위 원전 밀집도, 대한민국



단순히 원전 2기 추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분	원자로 개수	설비용량	비고
현재	24기	22,529 MW	
신고리 5,6 중단 신한울 1 신한울 2 신고리 4	27기	26,729 MW	고리 1호기 7개에 해당
신고리 5,6 재개 신한울 1 신한울 2 신고리 4 신고리 5 신고리 6	29기	29,529 MW	고리 1호기 12개에 해당



한번 사고만으로도 치명적

고리원전 30km 내
382만명 거주

고리원전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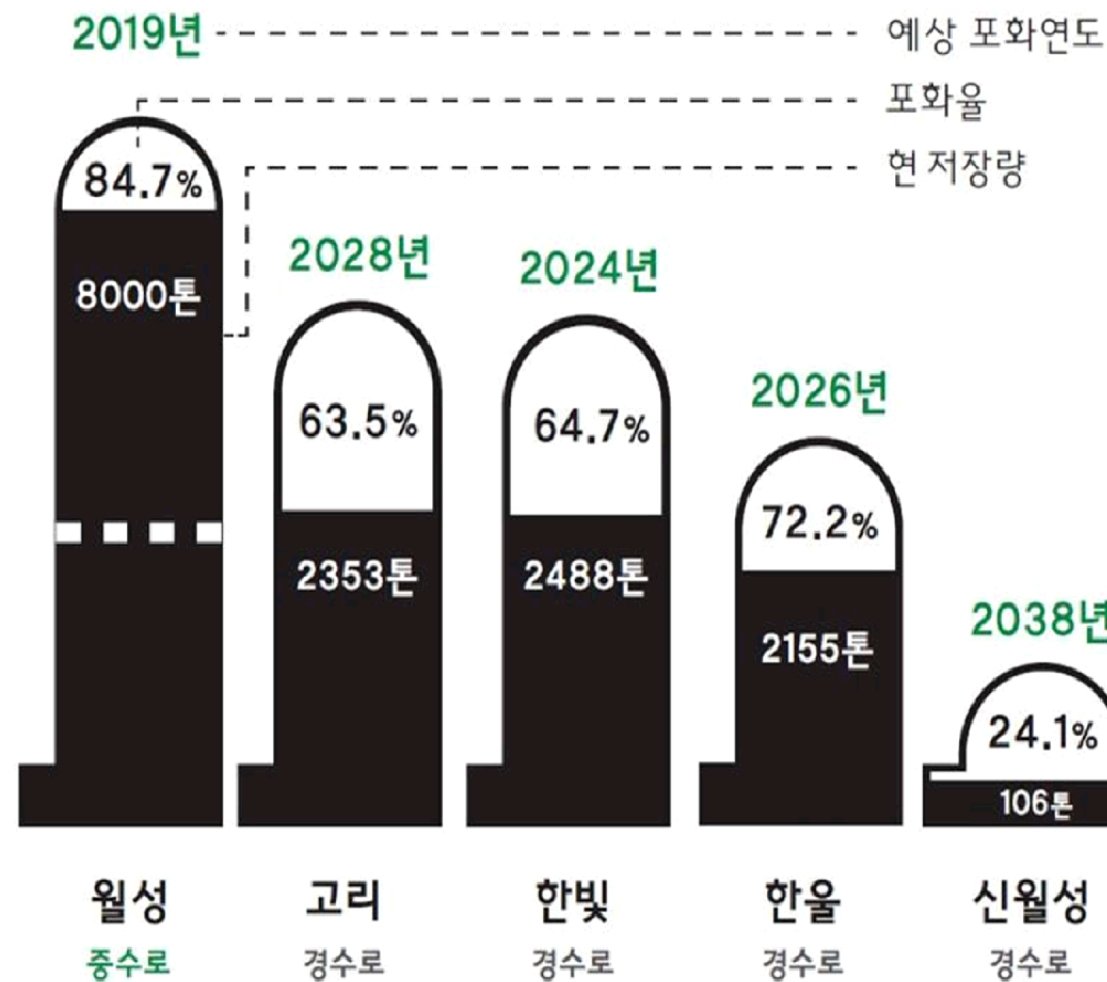
신고리원전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리



부울경 일대 60여 개의 지진활성단층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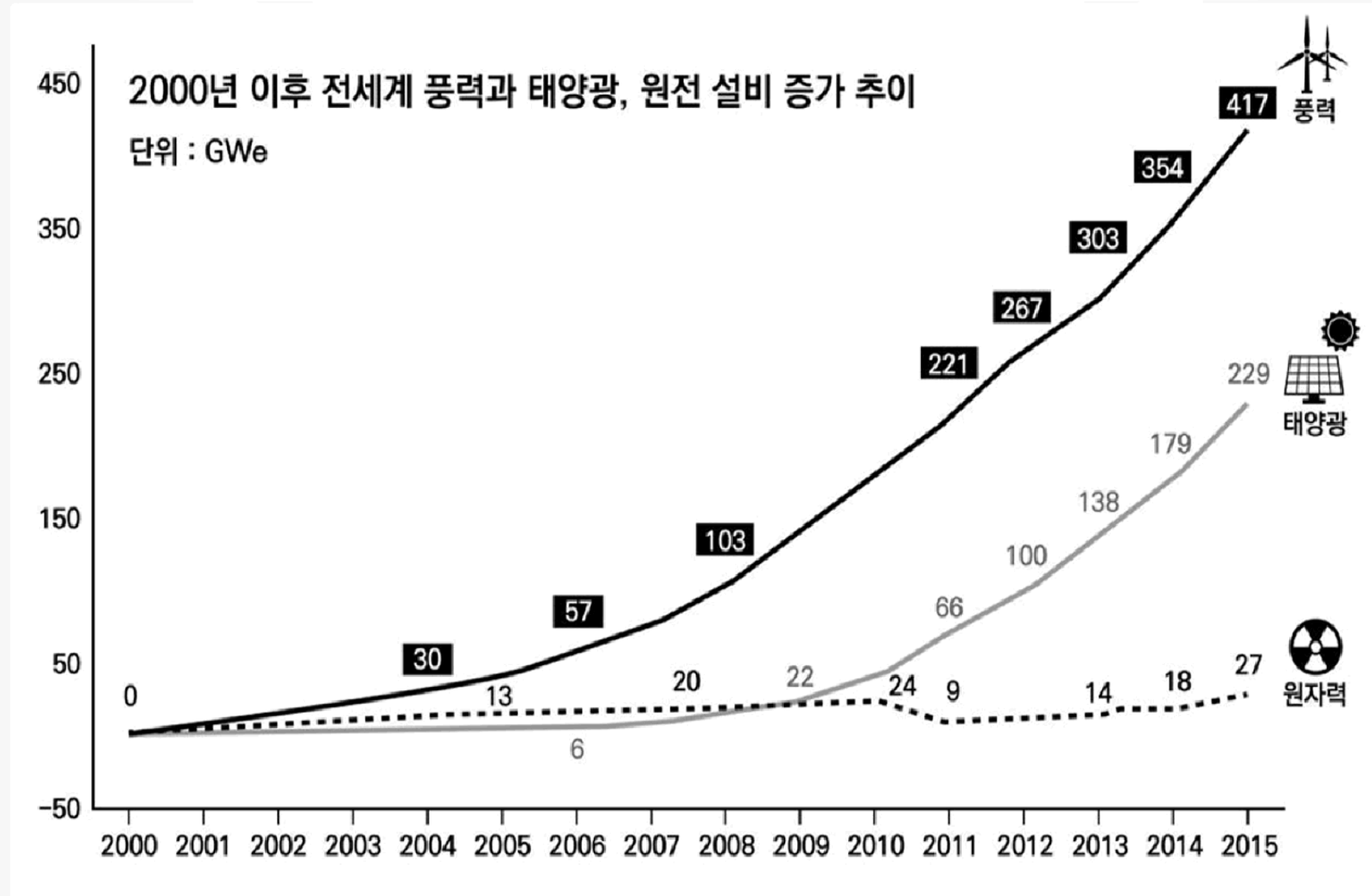
경주 원전 6기
부산·울산 원전 8기 + 2기?

임시저장소에 대책 없이 쌓이고 있는 고준위 핵폐기물



※출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2017),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2015)

2016년 전세계 신규전력설비 62% 재생에너지



※출처 : World Nuclear Industry Status Report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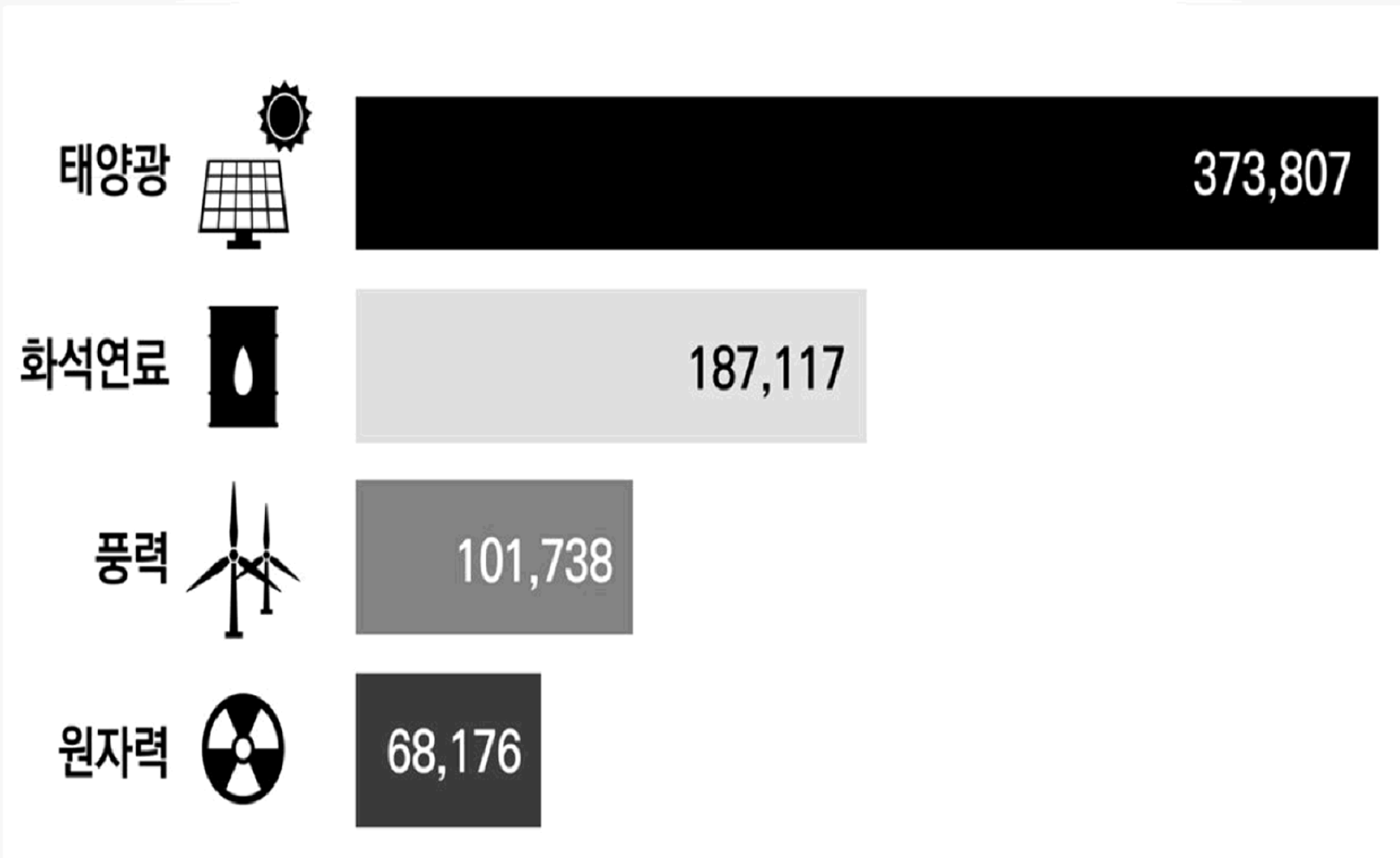
급속히 증가하는 재생에너지 일자리

2016년 세계 전체: 980만 개
2030년 세계 전체: 2,400만 개 전망



출처: Renewable Energy Network, 2017, IRENA 2017

재생에너지는 일자리 창출형 산업



※출처: 미국 에너지부 2017

세계적인 기업 106개 재생에너지 100% 목표 선언



한화큐셀, 셀 생산 규모 세계 1위 태양광 회사 '글로벌 리더' 도약

조선비즈 2017.6.29

LG화학, 전 세계 전기자동차 배터리 누적 수주 금액 36조원 2020년 시장 점유율 40%로 시장 주도

매일경제 2017. 6. 29

전력 수요자원거래(DR) 시장 선도기업 그리드위즈, 3년 만에 매출 15배 급성장

조선비즈 2017.6.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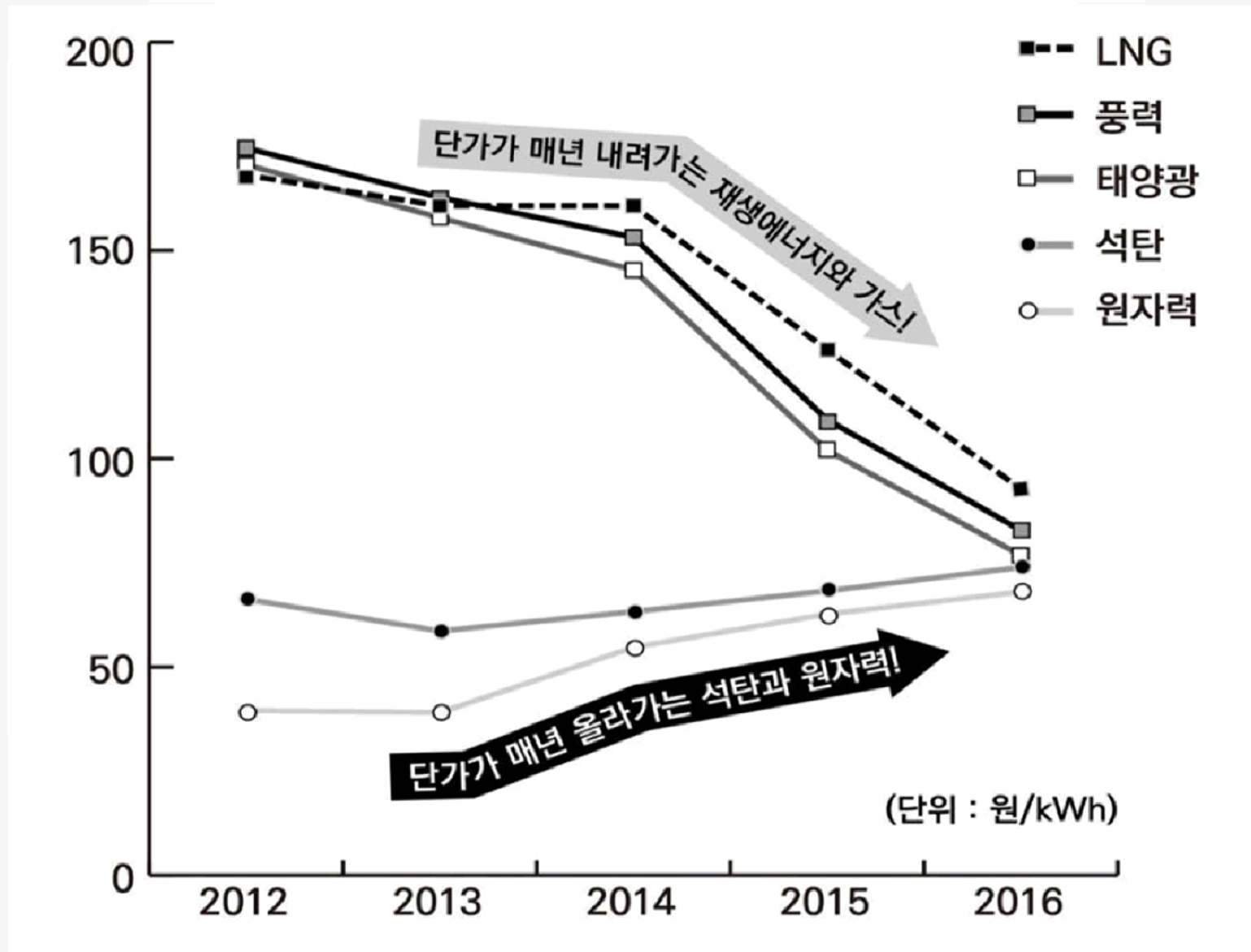
2017년 상반기 전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
세계 2위 LG 화학(12.3%), 5위 삼성SDI(6.4%)

지피코리아 2017. 9.13

루트에너지 시민참여 태양광, 출발부터 '대박'

투데이에너지 2017.7.31

발전원별 정산 단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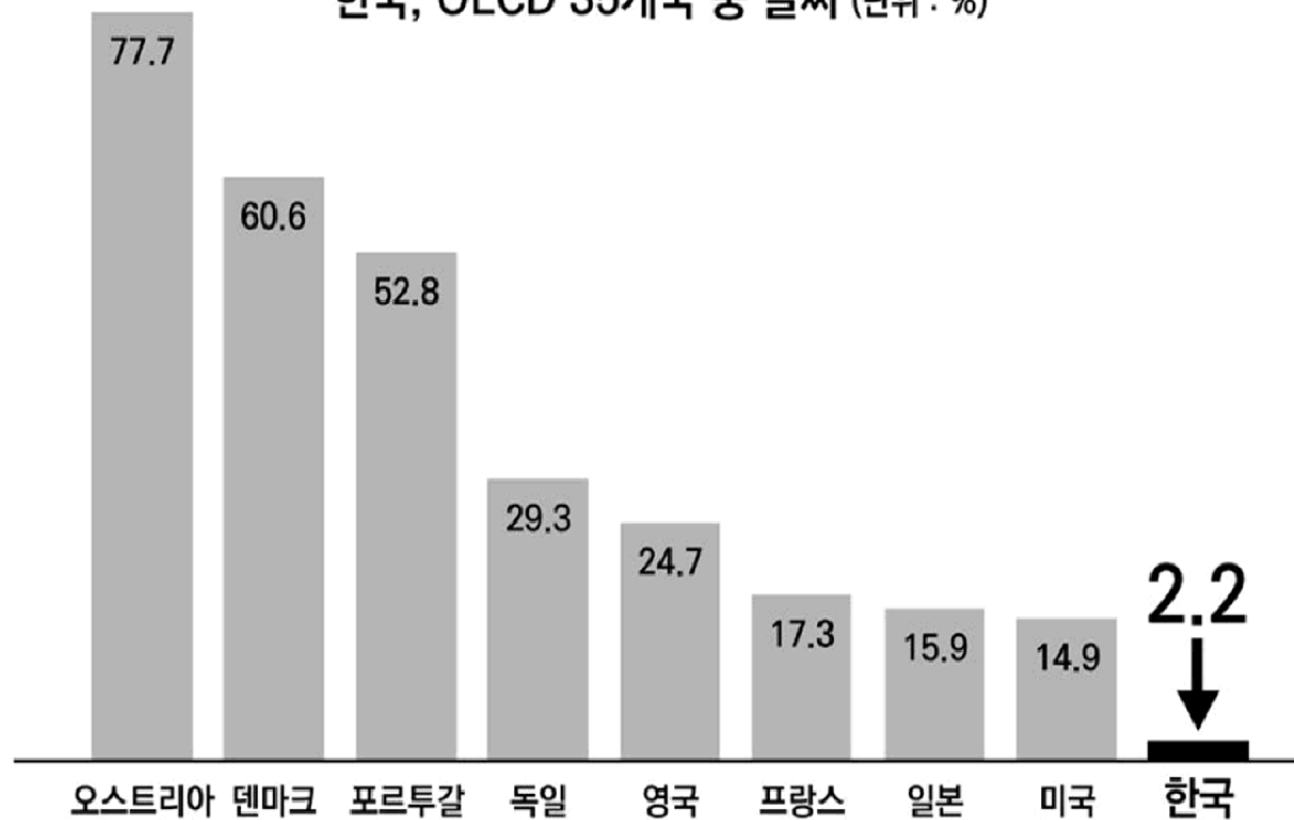


※출처: 전력거래소 2017

신고리 5·6호기를 넘어 에너지전환 종잣돈 마련

신고리 5·6호기에 들어갈 7조원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에 투자

주요 국가별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 비중
한국, OECD 35개국 중 꼴찌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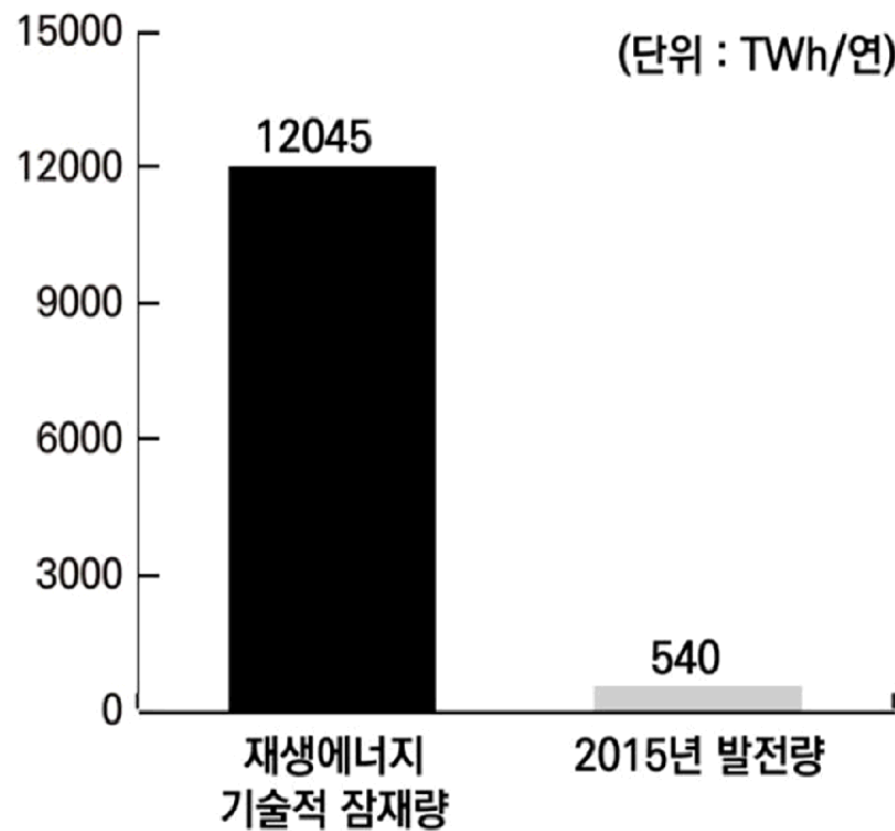


※출처 : Renewable Information 2017 IEA

신고리 5·6호기를 넘어 에너지전환 종착돈 마련

신고리 5·6호기에 들어갈 7조원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에 투자

국내 재생에너지 기술적 잠재량, 2015년 발전량 22배



※출처: 신재생에너지백서 2016

건설재개촉 입장

공론화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

2017. 9. 16.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정 범 진

(한국원자력학회 부회장, 산업부 전력정책 심의위원회 위원)

들어가기에 앞서...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열쇠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국가 정책으로
결정되어, 30%가 진행 중인 사업의
중단 또는 **재개**를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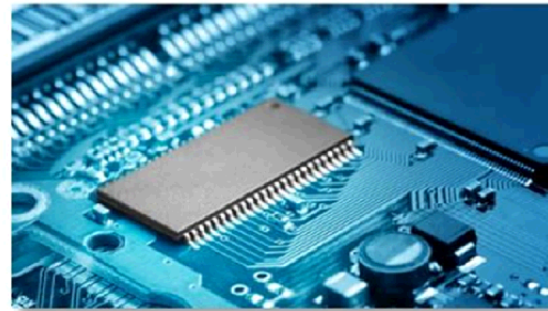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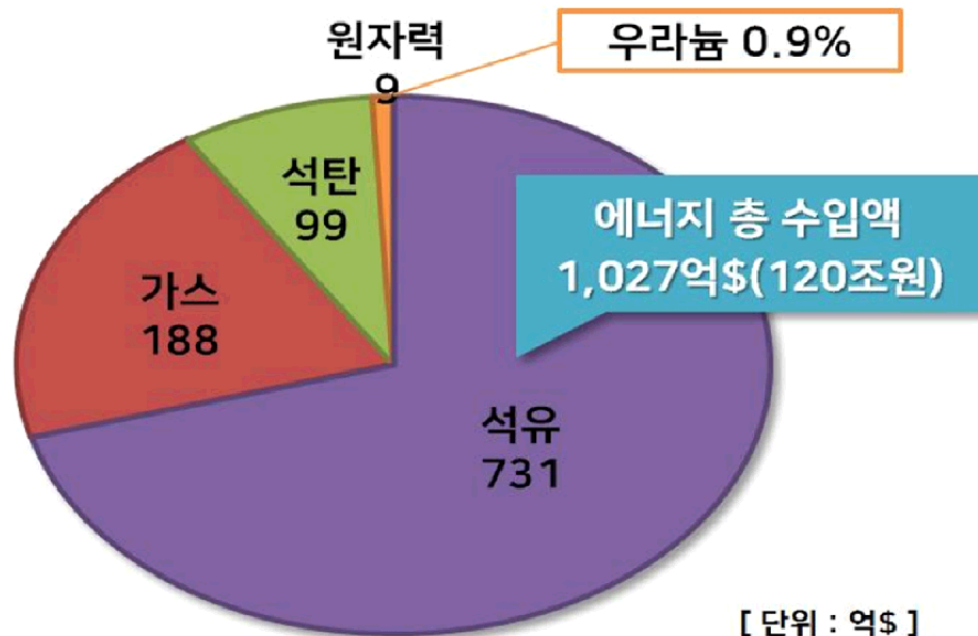
편견 없는 현명한 판단 필요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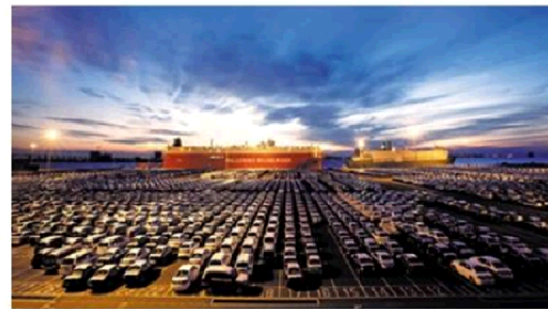
▶▶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5%를 수입**하는 자원빈국

- 에너지 수입액이 국가 총 수입액의 1/4 차지
- 수출효자 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액만큼 에너지 수입
- 2015년 에너지 수입 비중

에너지 총 수입액(1,027억\$) ≙ 2대 대표기술 수출액(1,086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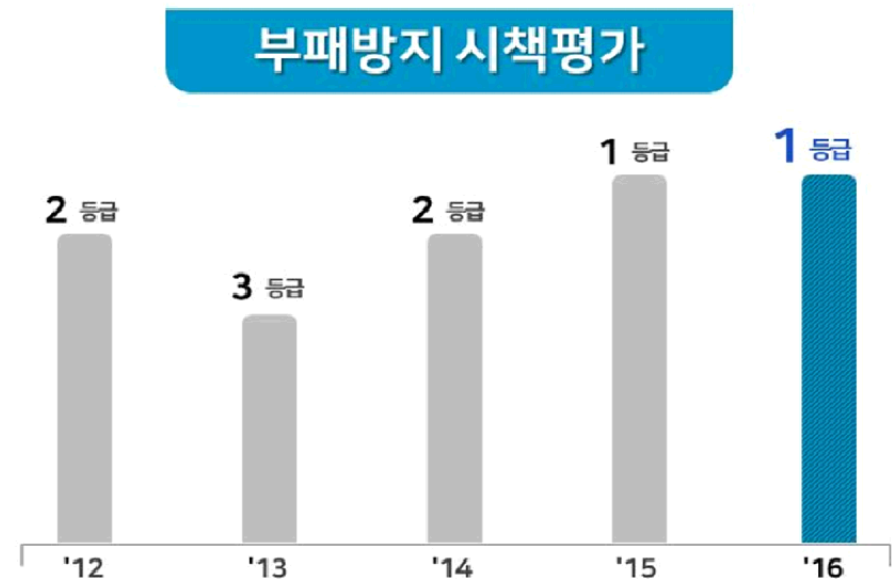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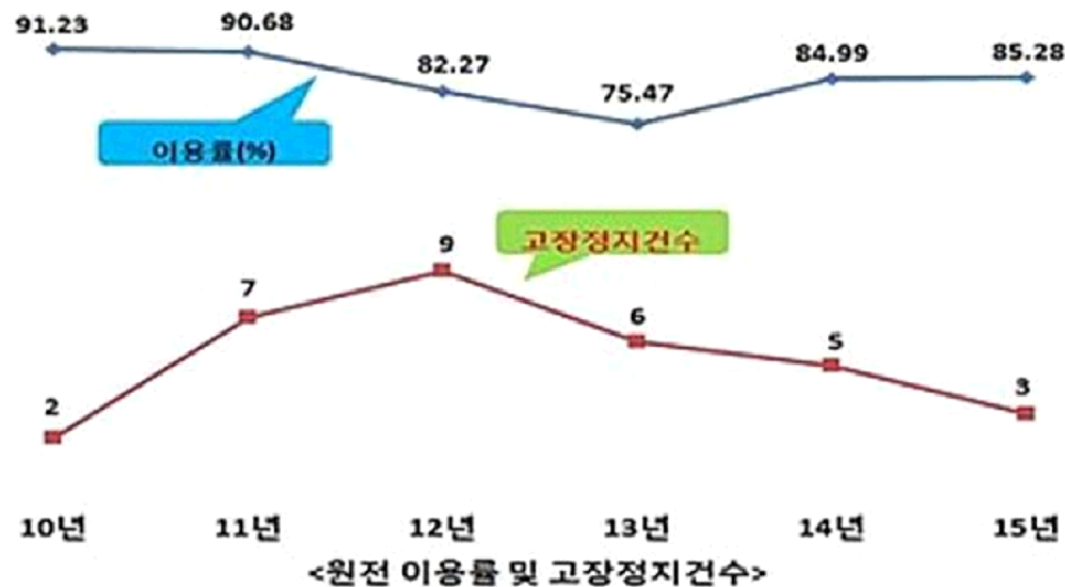
반도체 629억\$
(약 70조원)



자동차 457억\$
(약 50조원)

40년간 원전은 잘 운영되어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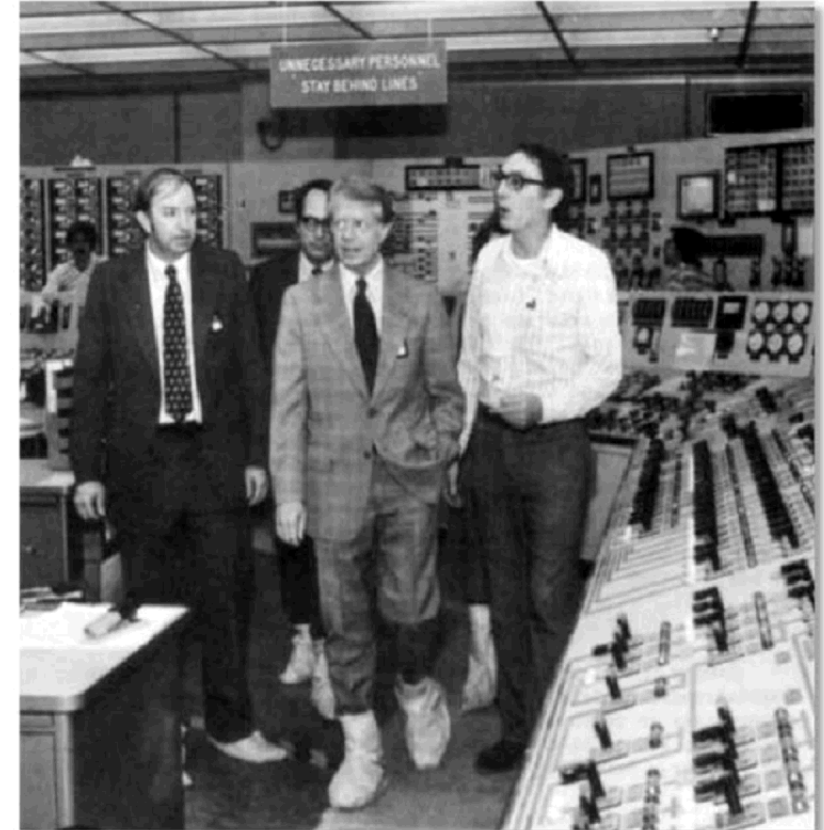
- ▶▶ 우리 원전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고장정지율과 높은 이용률을 기록
- ▶▶ 위기 이후 독립적 규제 체계 확립, 부패방지 노력 등 관리체계 강화
- ▶▶ 앞으로 보다 투명한 정보공개 및 지역주민 참여 확대 노력



안전에 확신을 가지고 선진국도 원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미국은 TMI 2호기 사고가 났음에도 **바로 옆 1호기를 운전 중**

- 핵연료가 녹아내리는 사고가 났어도, 방사성물질의 대량 누출은 없었음
- 1m 두께의 격납건물이 있어 한 명의 주민도 방사선 피폭은 없었음



우리 원전기술은 세계가 인정하고 수출도 하였습니다

» UAE 원전사업을 통해 우리 기술의 경쟁력과 우수성 입증

- 2009년 미국, 프랑스, 일본 등과 경쟁하여 4기의 UAE 원전 사업 수주
- 세계가 우리 원전의 우수성을 인정, 영국·체코도 우리 원전의 도입을 검토



UAE 원전 수출 협정식

2017년 3월 14일 美 포브스紙 기사
- University of Houston Energy Fellows -

한국은 선진 원전기술을 도입하고 표준화와 중앙 집중화에 성공하여 세계 시장의 글로벌 리더로 성장했다.

미국의 원자력 산업은 한국의 모델을 받아들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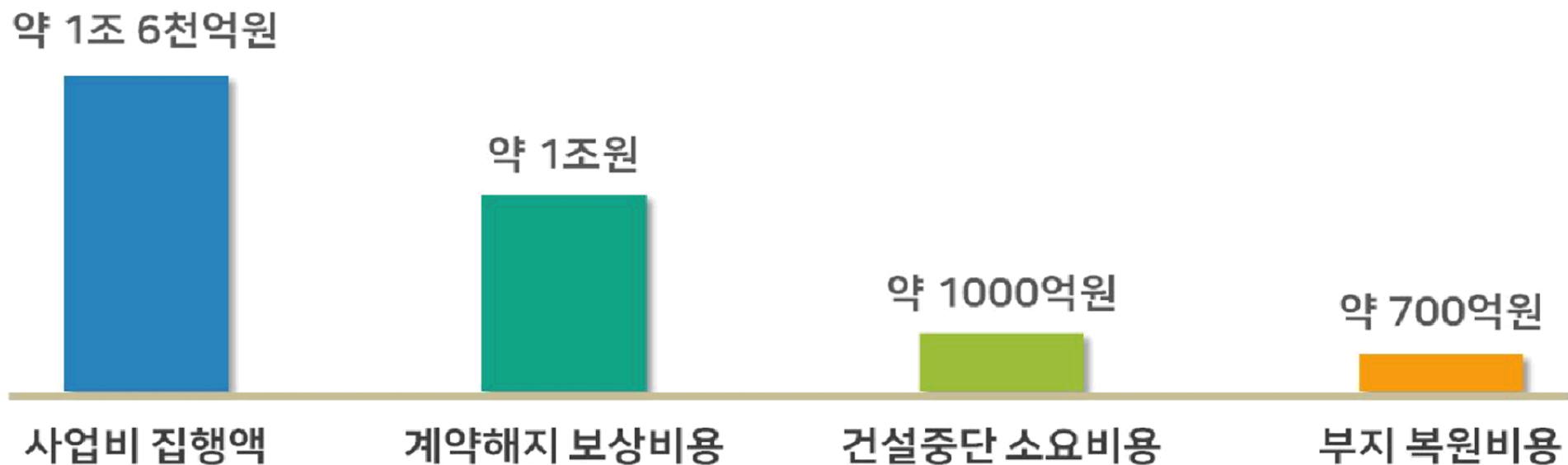
중국은 한국 원자력 산업의 모델을 모방 중이며, 향후 20년 간 중국에서만 30개 이상의 신규원전이 계획되어 있는 등 세계적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신고리 5,6호기 문제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신고리 5,6호기를 건설하지 않으면?

- ▶▶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하면 **2.8조원의 세금 낭비**
- ▶▶ 기업과 계약해지를 위한 **소송, 분쟁** 등 추가 비용 및 주민 이주보상 문제 발생
 - **1,200여 개**의 협력사와 약 **5조 원**의 계약 체결
 - 200세대의 이주문제 해결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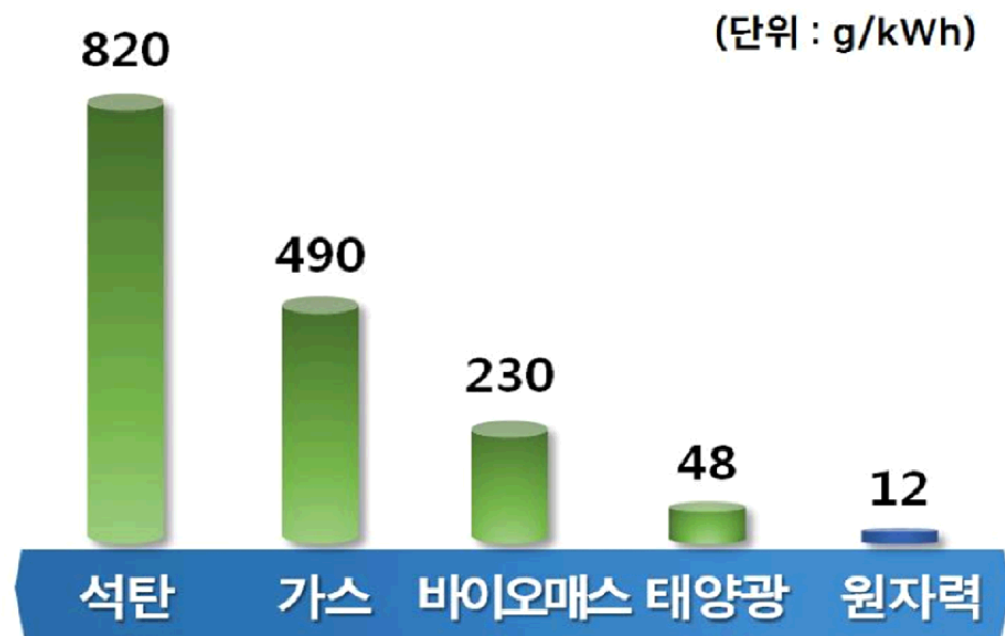


신고리 5,6호기를 건설하지 않으면?

▶▶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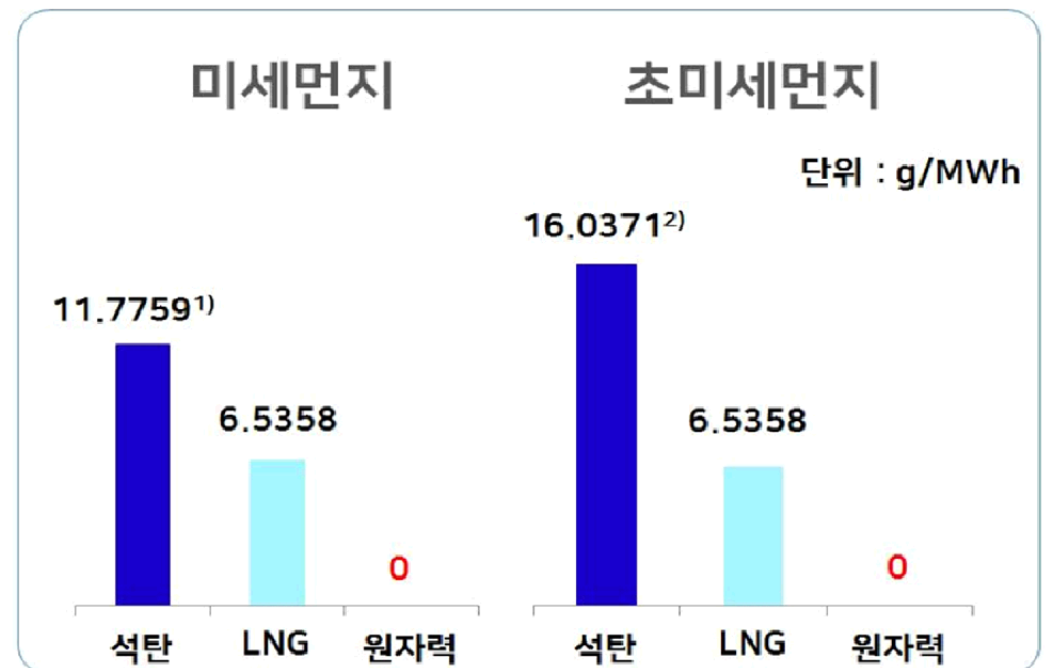
▶▶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37% 감축**을 국제사회와 약속

[에너지원별 온실가스 배출량]



※ 출처 : 2014 Lifecycle CO₂ Emissions(IPCC)

[에너지원별 미세먼지 배출계수]



1)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2015, 국립환경과학원)

2) 미세먼지 배출저감장치 설치 가정(99.9% 저감)

건설할 경우 중지보다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 중지할 경우 향후 60년간 큰 국가적 이익 상실



» 당장 1만 2천여 명의 가장의 일자리 위협

신재생 만으로는 전력공급이 어렵습니다.

고리지역 원전을 태양광으로 대체하면 원전의 370배 면적 필요

- 고리·새울 원자력발전소(10,150MW) 태양광으로 대체시 면적

부산시와 울산시 합친 면적의 80%



환경훼손과 해당 지자체의 반대로 무한정 늘릴 수 없음



다수호기 걱정 없습니다.

» 고리 부지와 해외 유사사례 비교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 ▶▶ 넓은 부지에 충분한 거리를 두어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음
- ▶▶ 발전소별 안전설비를 별도로 갖추고 있음
- ▶▶ 지진, 쓰나미 등 극한의 자연재해에도 근원적 대처하였음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수행

원자력안전법, 국제원자력기구 안전기준 만족

- ▶▶ 중요한 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얼마나 안전한가?** 문제

오해 #1 원전사고 피해

» 체르노빌 사고 사망자 : 25,000명 ?

» 후쿠시마 사고 사망자 : 1,368명 ?

구분	미국 TMI 원전 (1979.3)	구 소련 체르노빌 원전 (1986.4)	일본 후쿠시마 1원전(2011.3)
노형	PWR	RBMK	BWR
격납건물	대용량 격납건물	격납건물 없음	격납건물 체적 작음
사고호기	2기 중 2호기	4기 중 4호기	6기 중 1~4호기
사고원인	운전원 판단 착오	설계 결함	쓰나미 대비 미흡
사고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심용융 인명피해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심용융, 건물파손 43명 사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심용융, 격납건물 손상 인명피해 없음
방사능 외부누출	없음	$5.2 \times 10^{18} \text{Bq}$	$7.6 \times 10^{17} \text{Bq}$ (20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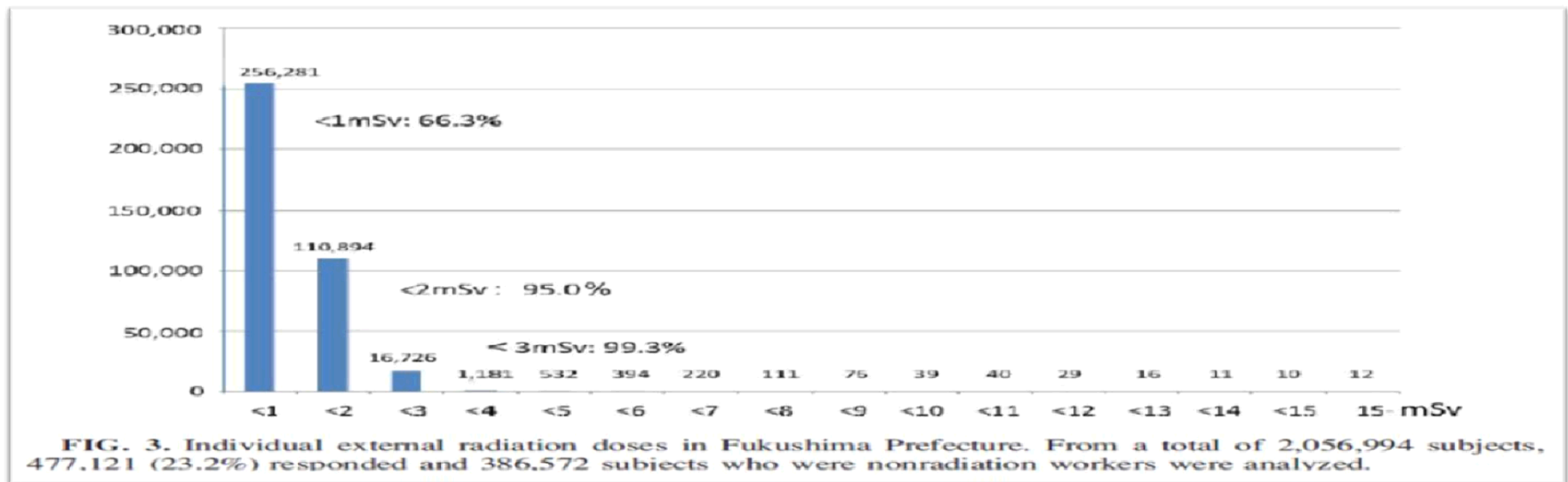
오해 #2 원전사고 방사선 피폭

▶▶ 후쿠시마 사고 시 대부분의 주민이 받은 방사선량 : 3mSv 이하

- 3mSv : 서울시민이 1년 동안 자연으로 부터 받는 선량
- 3mSv 초과 : 조사대상 386,572명 중 2,671명(0.7%)

▶▶ 스리마일 원전 사고 시 주민이 받은 방사선량 : 평균 0.01mSv

- 한 명의 주민도 유의미한 방사선 피폭 없었음



[해외 각 국의 연간 자연방사선량]

- 한국 : 3mSv / 인도 케렐라 : 4.31mSv / 중국 양장 : 5.47 mSv / 유럽 알프스 : 5~10 mSv

오해 #3 판도라는 현실?

▶▶ 판도라는 영화의 극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허구임



- 철골구조로 되어있어 폭발하지 않음
- 사고가 나도 방사성 물질이 바로 방출되지 않음
- 실제로 대피할 시간이 충분

오해 #4 원전은 비싸다?

▶▶ 원전은 국회에서도 가장 저렴한 에너지로 인정

[전원별 발전원가]

2015년 발전원가 (원/kWh)	원자력	유연탄	무연탄	LNG	양수	신재생 (기타)
	49.6	61.1	102.4	147.4	180.6	221.3

※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 2015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

▶▶ 우리나라에서 원전은 향후에도 가장 저렴한 발전원으로 예상

[2020년 전원별 발전원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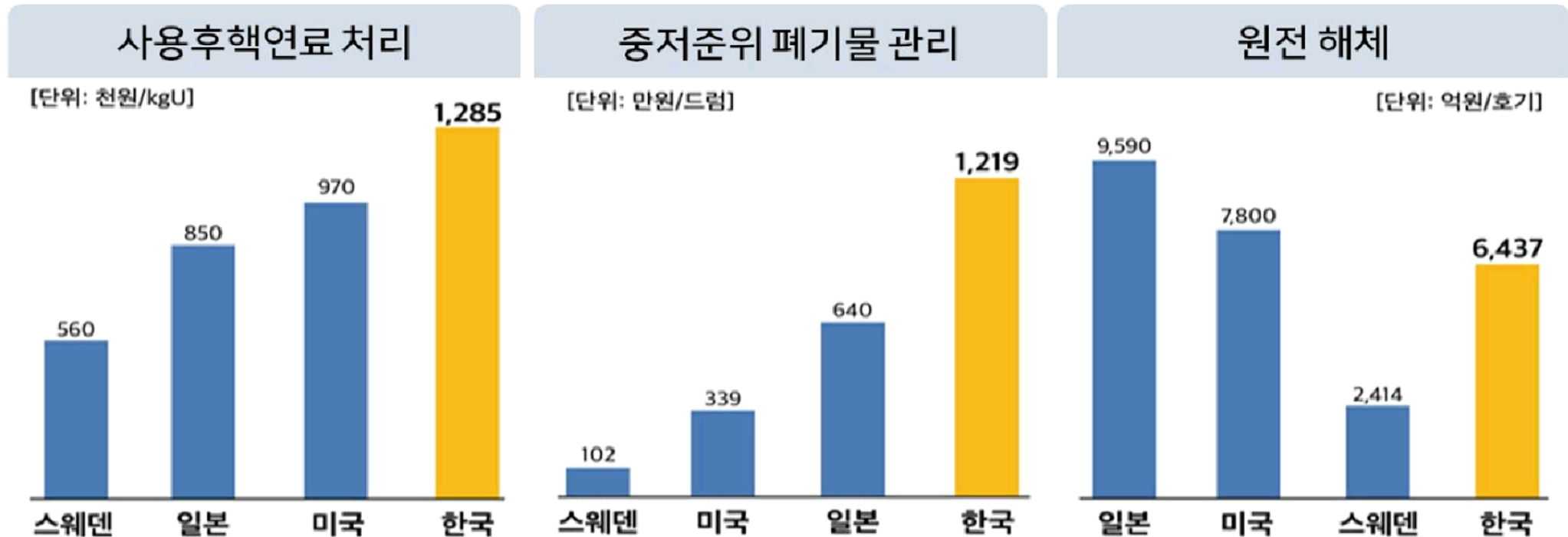
분석기관	단위	대상 국가	원자력	석탄	LNG	태양광	풍력
국제에너지기구 (IEA)	\$/MWh	세계평균 ¹⁾	82.6	83.6	102.9	91.3	130.8
		한국	40.4	80.4	118.6	142.1	147.5

주1) 분석대상인 22개 국가별 발전원가의 중간값(median)

오해 #5 사후처리비용, 사회적 비용 미반영?

▶ 이미 사후처리비용, 지역지원금 등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였으며
그래도 가장 저렴한 발전원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 처리비용은 세계 최고수준
- 원전해체비용은 세계 평균 이상으로 충분히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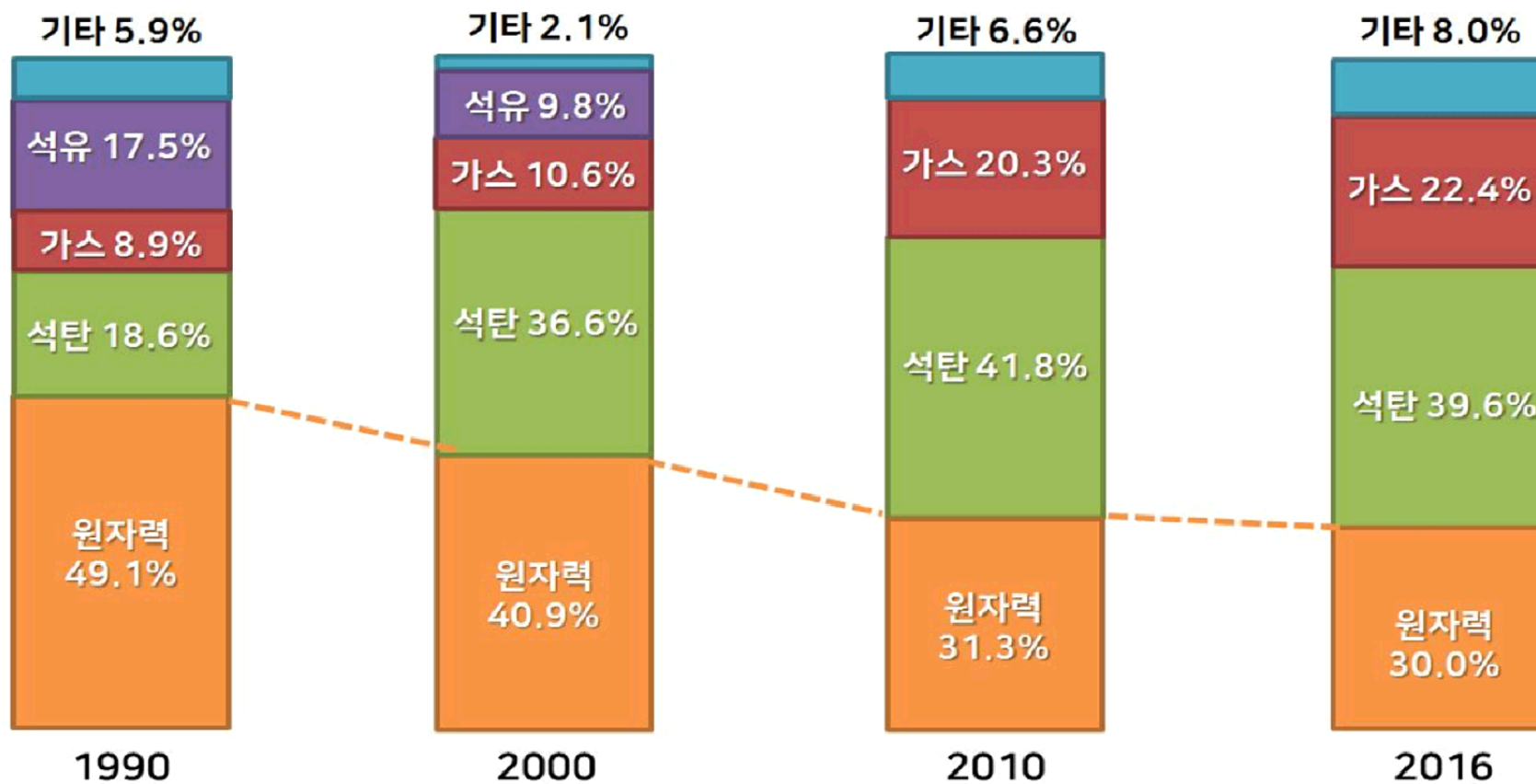


※ 출처 : 프랑스 회계감사원 '프랑스의 원자력비용' ('12.1), '14년 방폐기금 운용계획, 원자력연구원 '고준위폐기물시스템 기술현황'

오해 #6 원전 확대 위주 정책?

- ▶▶ 안정적 공급을 위해 다양한 발전원으로 전력 생산
- ▶▶ 원전 비중은 '90년 이후 오히려 감소하였음

[우리나라 발전량 구성 변화('90~'16)]



맺음말

- » 에너지는 이상이 아닌 우리의 현실
- » 우리의 형제와 자녀들의 미래
- » 과학의 눈으로 냉정한 판단 필요
- »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중요한 미래를 결정

메모

